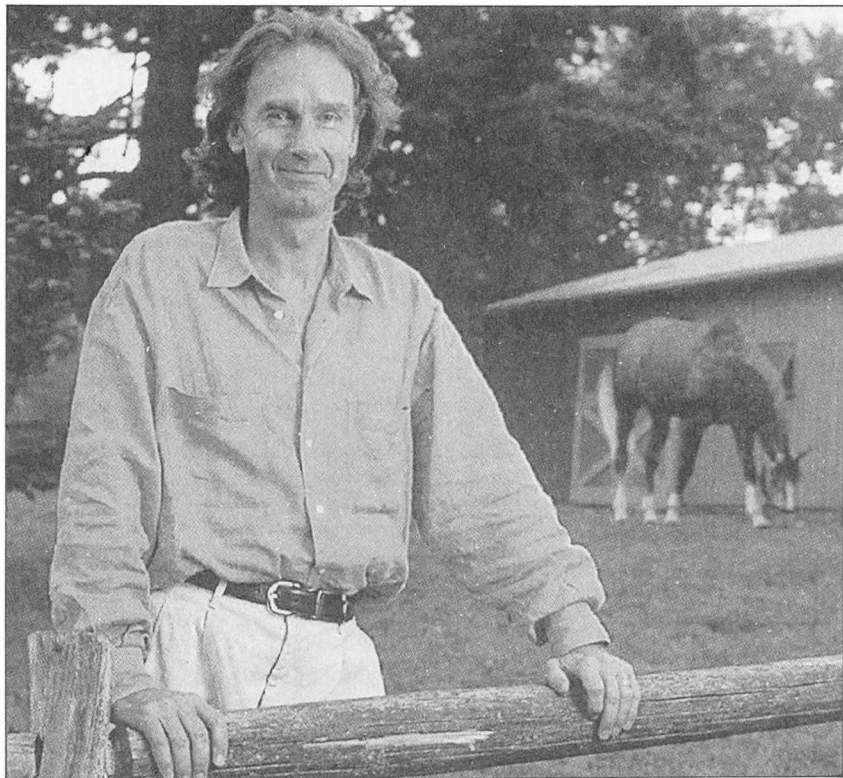


미 서점가에 '제2의 매디슨 카운티' 열풍

중년의 사랑을 주제로 한 《호스 위스퍼러》 인기



기자·영화감독의 다양한 직업을 거쳐 데뷔소설 《호스 위스퍼러》를 펴낸 니콜러스 에반스.

미국 서점가에 제2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열풍이 불고 있다. 제목은 《호스 위스퍼러(Horse Whisperer)》(텔 刊). 중년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분위기가 《매디슨...》과 매우 흡사해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매디슨...》이 아이오이주 시골마을을 무대로 한데 비해 《호스 위스퍼러》는 몬타나 주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목장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주인공은 말을 벗삼아 조용히 살고 있는 중년의 카우보이다. 그는 말 길들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스 위스퍼러》로 불리고 있다. 말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다.

사람구경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든 목장에서 순수하게 살고 있던 그는 어느날 뉴욕 출신의 세련된 잡지편집인과 우연히 만나면서 사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춘부 프란체스카와 사진작가 키키이트이 사랑을 그린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비교할 때 《호스 위스퍼러》는 주인공의 직업만 다를 뿐 기본 구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두 소설의 제목을 합성해 '매디슨 카운티의 말들'이란 우스개소리까지 등장할 정도이다.

이 책은 11월초 출간 직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마이클 크라이튼의 《쥬라기 공원》 속편인 《잃어버린 제국》과 치열한 인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화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최근 로버트 레드포드와 디즈니사가 각축을 벌인 끝에 결국 레드포드가 3백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영화화 판권을 손에 넣기도 했다. 사실 이 작품은 출간되기 전부터 출판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매디슨...》에 버금가는 로맨틱 소설이란 소문이 돌면서 일찌감치 베스트셀러 후보로 꼽혔기 때문이다.

작가는 니콜러스 에반스(45). 영국 태생의 기자, 영화감독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으며 《호스 위스퍼러》가 데뷔소설이다. 그는 이 작품의 북미 지역출판권료만으로 무려 3백15만 달러를 챙겨 줄지에 억만장자가 됐다. 위스터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말과 함께 성장기를 보냈던 것이 작품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몇년전 영국 남서지방을 여행하던 중 한 대장장이로부터 동물과 대

화능력이 있는 집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호스 위스퍼러》를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 중산층 여성의 삶

서양 여성의 눈으로 일본 여성의 일상생활을 섬세하게 조명한 《마리코의 비밀: 일본 여성과 가족의 한해》(타임스 북스刊)이 출간돼 미국 언론과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 여성과 한국여성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를 끌 만한 저서이다.

저자는 엘리자 버밀러. 워싱턴 포스트紙 기자로, 뉴욕타임스紙 기자인 남편이 일본 특파원으로 부임하면서 1989년부터 3년간 동경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 버밀러는 '한번 기지는 영원한 기자'란 평소 신념에 따라, 동경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책 집필을 구상했다.

그동안 일본인의 삶을 소재로 한 책이 술하게 출간됐지만, 이 작품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의 시각에 충실한 만큼 감동과 공감대가 크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저자 버밀러는 비록 언론인이지만,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해서 전혀 문의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취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통역자들 사이에 두고 일본인들을 만나 한계가 많았지만, 그 덕분에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버밀러의 연구대상이 됐던 마리코는 44세의 중산층 주부로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 남편과 세 아이들과 함께 동경 시내에서 살고 있다. 파트 타임으로 가스회사 계량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통악기 사미센을 배우러 다니는 등 자기 개발에도 관심이 많다. 버밀러는 통역자 사치코와 함께 마리코의 집으로 놀러가 수다를 떨면서 보통 일본인들의 부부생활, 육아 및 사회문제 등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세 사람이 우연히

야쿠자들과 마주친 대목이다. 버밀러는 기자정신을 발휘해 겁없이 인터뷰에 나섰다 "집에 가서 아이들이나 돌보라"는 점잖은 충고를 받고 물러났다. 그는 "말투는 조용했지만 살벌한 분위기였다"면서 "야쿠자가 일상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버밀러가 마리코 없이 혼자서 동네 학교 자모회에 구경갔다가 구박받는 대목도 흥미롭다. 평소 마리코를 대동했을 때 호의적이었던 주부들이, 그날은 "과자와 차의 여분이 없다"면서 버밀러를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등 극히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저자는 이를 통해 일본인의 폐쇄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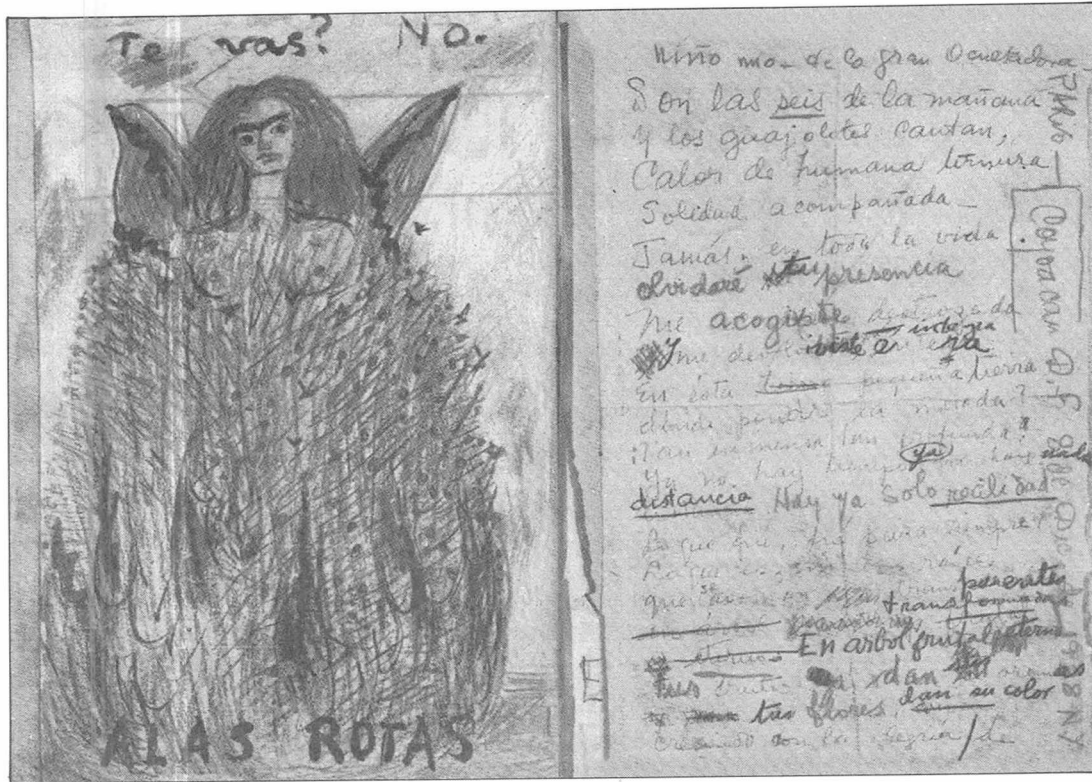
그러나 버밀러는 마리코로부터 "보통의 삶이 특별한 삶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배웠고, 여성의 삶은 인종을 뛰어넘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여성화가 칼로의 일기책 공개

멕시코 최고의 여성 현대화가로 추앙받고 있는 프리다 칼로(1907-54)의 일기책이 사후 40년만에 일반공개돼 학계 및 미술애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프리다 칼로 일기》(헤리 N. 에이브러햄스刊)는 칼로의 마지막 10년간을 기록한 것. 칼로 자신에 관한 것은 물론 남편인 화가 디에고 리베라 및 당대 최고 문인,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상세히 적어 놓아 미술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제까지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칼로의 삽화, 시, 수채화 등이 수십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디에고 나의 아이, 나의 보이프렌드, 나의 화가, 나의 연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디에고는 곧 나다"란 글귀를 통해 남편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읽을 수 있다.

일기책과 함께 《프리다 칼로 서간집》(크로니클 북스刊)도 출간됐다. 여기에는 칼로



사후 40년만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프리다 칼로 일기>.

가 친구·친척·연인·의사 등에게 보낸 편지 50여통이 수록돼 있다. 프리다 칼로는 20세기 초 멕시코의 화단을 주름잡았던 여성 화가이다. 멕시코시티 교외에서 독일 유대계 사진기사인 아버지와 멕시코 토박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 소아마비에 걸렸던 그는 청소년기에 버스 교통사고를 당해 절름발이 신세가 됐고, 수십 차례 수술을 받는 등 남달리 고통스런 삶을 살았다.

특히 남편 디에고 리베라는 그녀에게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준 존재였다. 20여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했을 당시 리베라는 이미 사회주의 계열의 민중화가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남편을 광적으로 사랑했던 칼로는 디에고의 끝없는 바람기에 고통을 당했고, 쓰라린 배신의 상처와 육체적인 고통을 자신의 그림 속에 리얼하게 투영했다. 그로 인해 칼로는 '고통의 화가'로 불리기도

한다. 생전 당시에는 리베라의 명성에 가려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사후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으로 선구적인 여성화가로 재평가받으면서 남편보다 오히려 더 큰 명성을 누리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화집·사진집 등이 쏟아져 나오고 연극·뮤지컬·영화까지 선보이는 등 서구 예술계에서 프리다 칼로 붐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기도 한다. <오애리>

역사로 해석한 하이데거

장 보프레의 제자이자 휠덜린과 하이데거의 불어 번역자인 프랑수아 페디에는 최근 평주를 단 하이데거의 불어본을 출간했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정치적인 글들(Ecrits politique)>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1933년에서 34년에 하이데거가 썼던 글들을 모아 놓고 그것을 저자의 시각으로 분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하이데거의 나치부역으로 항상 논란이 되는 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책은 우선 하이데거가 당시 정치적인 색채를 농후하게 띠고 말하거나 기사화했던 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총장 연설>, <연설문>, <기사> 등의 제목으로 분류된 이 글들은 저자의 말처럼 1933년에서부터 1934년 초, 총장에서 물러난 1934년 초까지 하이데거의 정치적 실정을 측정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모아놓은 최초의 책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1937년의 강연 <과학을 짓누르는 위협>과 전후 프라이부르크 대

학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학적 언명들, 그리고 그의 사후인 1976년 출간된 <슈피겔>지와의 인터뷰 등도 실려 있다. 이 책의 목표는 하이데거의 오류를 역사적인 실제 상황에서 파악하고 만연돼 있는 무책임한 하이데거에 대한 주해로부터 벗어나는데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하이데거가 문제가 되는가? 페디에에 따르면 하이데거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인 6년밖에 되지 않는다. 페디에가 보기에 공산주의의 붕괴라 불리는 상황은 지식인 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았다. 페디에는 히틀러에게 투표하라고 이야기했던 하이데거가 직면한 상황이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와 맥락 속에서 스탈린의 정치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의 상황과 같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즉 이 두 경우 모두 과오는 있었지만 그것을 절대적 과오(faute absolu)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하이데거의 죄상을 고발하려는 반하이데거주의적 의도로 씌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책은 하이데거의 오류를 무조건 극소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페디에의 말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방의 가면을 벗겨 거짓말장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그의 하이데거 연구 목표를 말해주는 셈이다. <김택>

당신과 일본 남자가 쓴
반상 위의 한일 전쟁

양미운 아내는 한국인

한국의 한일 전쟁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연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톡톡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언어 한 토막, 같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반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별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솔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녀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양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연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정가: 6,000원